

北 근로자 출근 안해 개성공단 ‘올스톱’

정부 ‘유지’ 확인속 체류 인원 최소화 朴대통령 “조업 잠정 중단 매우 실망”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예상대로 개성공단 업체에 출근하지 않아 조업이 중단됐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기계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은 9년 만에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업체별로 1~2명씩 경비직 근로자만 약 200명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협력부에서 일하는 북한인 8명도 오늘 출근했다”고 전했다. 5만4000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은 평소 오전 8시를 전후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250여대의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했으나 이날은 통근버스도 운영되지 않았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근로자 전원 철수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서 정부가 대화 제의 등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하에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475명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만큼 현지체류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 인원은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환차량 지붕까지 화물 가득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9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이 차 지붕까지 짐이 가득한 귀환 차량을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러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잔류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밀정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찌 조급한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에는 예측 가

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키다니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문재인 결단력 유약 계과정치로 대선 패배”

정치적 책임 한명숙·이해찬 順

민주당 대선평가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는 9일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유약한 결단력과 계과 패권주의 등을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평가했다.

평가위가 지목한 책임 당사자들은 대부분 작년 총선과 대선 때 당권을 쥔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어서 친노 진영의 반발과 함께 당내 주류·비주류 간에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평가위는 이날 공개한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사전 준비와 전략 기획 미흡 ▲당 지도부의 책임의식과 리더십 취약 ▲계과정치로 인한 당의 분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방만한 선대위 구성 ▲로 전 후보의 정치역량과 결단력 유약 등을 6대 패배 요인으로 꼽았다.

평가위는 “문 전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면퇴진론이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과 같은 중요한 국면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대위 체제로 개편하지 못한 채 별 변화 없이 그대로 굴러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모진 운영에서도 특히 후보 비서실은 청와대 출신들의 ‘재회 장소’ 같았다는 비판을 살 정도로 사회적 인맥이 공조직을 통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혹평했다.

평가위는 “당 지도부는 시대상황에 비해 안일했으며 중대 국면에서의 사활경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며 “민주당은 평상시 활동하지 않는 ‘휴면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고 수권정당과 정반대의 이미지를 고착시켰다”고 말했다.

계과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계과 패권주의가 도를 넘은 것은 확실하다”며 “계과정치 청산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대선 캠프를 민주, 시민, 미래 등 3개 조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총괄사령탑을 세우지 않아 방만하고 혼선이 내재화된 조직이 되고 말았다”며 “비효율성이 컸고,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당내 설문조사를 토대로 당 지도부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을 수차례 묻고도 공개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한명숙 전 대표가 100점 기준에 76.3점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선 당시 이해찬 전 대표가 72.3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박지연 전 원내대표가 67.2점, 문재인 전 후보가 66.9점,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이 64.6점을 각각 받았다.

평가위는 “민주당에는 정치적 책임 윤리가 거의 빈사상태에 있다. 지도부가 자신의 책임을 깊이 성찰하고 공개적으로 ‘내 탓이오’ 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24 재보선 ‘북한 이슈’ 영향받나

정치권 ‘북풍, 선거흐름 뒤집지 못할것’

한반도 안보위기가 계속되면서 보름 앞으로 다가온 4·24 재·보선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발(發) 안보위기는 각종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 이슈 때문에 재·보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투표율을 저하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낮은 투표율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을 적용하면 안보이슈는 새누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또한, ‘인사 실패’를 비롯 한 새 정부의 난맥상이 일정부분 가려지고 보수층의 ‘안보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안보 상황이 박근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대북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야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 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는 두 달여 뒤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참패를 안겼다. ‘북풍(北風)’이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공식이 깨진 셈이다.

다만, 북한 이슈가 재·보선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3곳의 재·보선 지역 모두에서 특정 후보가 우위에 선 초반 관세가 굳어질 조짐을 보이는 데다, ‘지역 선거’ 성격이 강한 만큼 북한 이슈를 선거 쟁점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합당 홍익표 전략기획위원장은 9일 “최근에는 남북관계 자체가 선거 흐름을 뒤집을 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왔다”며 “특히 남북문제를 정파적 이익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럴 만큼 한반도 상황이 여유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선5기 광주시장 공약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점검하세요

광주시가 민선 5기 광주시장의 공약 추진상황을 안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가능한 ‘메니페스토 공약추진 상황 홈페이지’는 분야별 공약 추진 현황, 공약별 목표 달성·이행도, 공약추진 일정·계획, 공약 자료실, 게시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공약 추진 현황에서는 개별 공약의 목표, 예산, 실적 등을 그래프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약별 목표 달성·이행도에서는 전체 공약의 이행률, 목표달성 여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약추진 일정·계획에서는 공약별 목표와 계획을 전자책(e-book) 형태로 구현하고, 공약 자료실에는 각 시장의 출마선언문, 공약서 등을 수록

했다.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약별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공약들은 그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공유기능을 활성화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4월 현재 84.4%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하다는 평가를, 2011년과 2012년에는 웹 소통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연구소’ 발족

孫 7월 독일서 귀국

연대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이날 오후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그동안 손 교문의 정책 자문을 했던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손 교문은 동영상 축사에서 “한 사회의 발전 여부는 그 사회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지금 우리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사

회체제 및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 공동체사회 복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미 보편화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구소는 이날 오후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그동안 손 교문의 정책 자문을 했던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손 교문은 동영상 축사에서 “한 사회의 발전 여부는 그 사회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지금 우리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사

회체제 및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 공동체사회 복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미 보편화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 (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림리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거문도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철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총 임차구입구 35㎡대로변 코너 주차면리 매2억4천만원 (7센타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이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아정(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리모델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패(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 10억~100억 이상 권면 대환영!!

= 상가 및 사무(매매) =

- 북구 영동동 화산빌 사무나 빌딩
- 최고의 상권 최대 수익률 보장
- 북구 용봉지구 바리스타부근 57개방
- 매가 8500만 2방1800평
- 동구 개동동 한성중학교 사무나
- 매가 137만 2방18(10방8중건물)
- 광안구 우동동 57개방
- 매가 300만 2방 9500평
- 상무지구 중앙역역 57개방
- 매가 172만 2방 1.172평
- 서구 신대동(해운대)부근 2건물
- (매매 후 122만해상)분할
- 매가 850만 2방 2.220평
- 상무지구 주공역의 상가건물 2층분할하고 있음

= 토지매매 및 분양 =

- 광안구 광안동 부근 대지4000평
- 매가 1억5000만원 2307가
- 상무지구 현4000평 및 부근 대지4000평
- 매가 4000만원 2307가
- 상무지구 대도변 최고 상가지역 대지8500평
- 매가 5000만 1.4000만원
- 상무지구 무주부근 대지 9억 0000평
- 매가 8000만 2307가
- 북구 광안동 480000평
- 매가 8000만원 2307가
- 광안구 송정동 대지 1500평
- 고흥군 정미동 대지 1.9849평
- (각 타지역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전환수수 후 내보내시면 인실보증금!!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대인동살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할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 팔거나 임대내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1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